

# 진보-檢, CNC 선거비 수사 신경전

“압수 물품 반환 불법수사” VS “복사 후 원본 돌려준 것”

## 김선동 “순천지원, 항응 받아 영장발부율 높다” 발언 사과

CN커뮤니케이션즈의 ‘선거비’ 보전금액 부풀리기 의혹(본보 6월 15일자 1·3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수사 선상에 오른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검찰과 법원은 통상적인 절차리며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순천·곡성)은 “법원 비하 발언”을 했다가 다음날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검찰의 칼날이 진보세력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세력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당과 사법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김선동

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법원 비하 발언’과 관련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다음날인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들이 검찰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아 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국 법원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지난 한 달간 자체 영장발부율과 기각률을 공개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김 의원이 영장발부율 문제는 일부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좌진들이 잘못 분석하

는 실수를 했으며 항응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 언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2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고 전했다.

순천지원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재판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로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은 지난 15일 순천지청이 압수해간 CN 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물품 257점 전량을 즉시 돌려주기로 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 무리한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자 검찰이 발끈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을 전량 복사한 뒤 원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며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 압수수색 대상에 ‘신체’와 ‘의복’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무실 근무자 등이 압수대상 물건을 몰래 또는 면전에서 자신의 신체와 의복에 숨기거나 감추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CN커뮤니케이션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반발로 대검찰청의 지원까지 받아며 이날 밤 늦게서야 압수를 마무리했다. 그러자 이 의원 측은 검찰의 무차별적 압수수색 집행은 위법이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지난 16일 밤 서해안고속도로 함평IC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여성 모이(26)씨가 물던 차량이 요금소를 들이 밟으면서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직원 김모(35)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함평경찰서 제공)

## 휴가철 음주운전

## 휴양지 집중단속

경찰청은 휴가철 음주운전 추방을 위해 19일 전국적인 교통안전캠페인을 하고 7월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매주 금요일 휴양지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예방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0.2% 이상이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만8461건, 사망자는 73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6%와 6.1% 감소했다.

/연합뉴스

## 올 면허취득 이주여성 툴게이트 충돌

### 함평IC 1명 사망·5명 부상

지난 16일 밤 9시43분께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서해안고속도로 함평IC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여성 모이(26)씨가 물던 투싼ix 차량이 요금소 진입금지 구조물과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직원 김모(35)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운전자 모이씨와 함께 타고 있던 남편(38), 친정 어머니(52), 두 아들(4살·2개월) 등 5명이 다쳐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김씨는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이씨는 한국을 방문한 친정 어머니와 남편, 아들 등과 함께 목포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영광의 집으로 향하였다.

사고 당시 함평IC 요금소는 3개 진입로(하이패스 포함) 중 가장 오른쪽 일반진입로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진입금지 구조물을 설치해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지난 1월 면허를 취득한 점 등으로 미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m <sup>2</sup>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b>[단독주택, 다가구주택]</b>					
2012년 경 785	1	1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695-1 600m <sup>2</sup> 동소 695-1 83.6m <sup>2</sup> [현황: 107.9m <sup>2</sup> ] 창고 및 45.4m <sup>2</sup>	대 단독주택	60,390,600 60,390,600 임대수익률 및 수익률 포함	임야 임야
2012년 경 1184	1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484 585m <sup>2</sup> 1 해남군 황산면 충정길 22 56.2m <sup>2</sup> [현황: 96.2m <sup>2</sup> ] 제시외 창고 및 14.7m <sup>2</sup>	대 단독주택	34,367,500 34,367,500 제시외 건물 일부부지	임야 임야
2012년 경 1290	1	해남군 황현면 후산리 566 360m <sup>2</sup> 1 해남군 황현면 후산리 566 360m <sup>2</sup>	대 단독주택	37,470,720 37,470,720 임차인 있음	임시외 임차인 있음

[대지/임야/전답]

1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산188-4 7689m <sup>2</sup> [분 묘소지로인하여 분묘기지권설립여지있음]	임야	4,613,400 4,613,400
2	동소 51 661m <sup>2</sup> [분묘소재로인하여 분묘기지 권설립여지있음]	전	25,880,900 25,880,900 임대수익률 및 수익률 포함
3	동소 564 575m <sup>2</sup> [매각대상아닌 제시외 건물 있음]	대	4,925,000 4,925,000 임대수익률 및 수익률 포함
4	동 소 573 754m <sup>2</sup>	전	3,016,000 3,016,000 임대수익률 및 수익률 포함

[2011년 경 6670]

1	해남군 산이면 진자리 산43-12 1884m <sup>2</sup> [현 황: 전]	임야	163,828,000 163,828,000 임차인 있음
2	1 완도군 청산면 국산리 49 625m <sup>2</sup> [분묘소재 로인하여 분묘기지권설립여지있음]	전	1,187,500 1,187,500 임차인 있음

[2011년 경 433]

1	해남군 현수면 일평리 23 820m <sup>2</sup> [현황: 전]	하천	4,346,000 4,346,000 임차인 있음
2	동소 51 661m <sup>2</sup> [분묘소재로인하여 분묘기지 권설립여지있음]	전	3,305,000 3,305,000 임차인 있음
3	동소 689 486m <sup>2</sup>	전	2,187,000 2,187,000 임차인 있음
4	동소 1005-3 1316m <sup>2</sup> [매각대상아닌 비닐하우 스소재]	답	9,212,000 9,212,000 임차인 있음

[2012년 경 839]

1	완도군 소안면 아월리 산22 9421m <sup>2</sup>	임야	3,956,820 3,956,820
2	완도군 소안면 학동리 산22-8 9421m <sup>2</sup> [0 1] 산22-8 9421m <sup>2</sup> [분묘소재]	임야	1,963,800 1,963,800

[2012년 경 1078]

1	해남군 속지면 지속리 173-1 68828m <sup>2</sup> [분 묘소재로인하여 분묘기지권설립여지있음]	임야	61,945,200 61,945,200
---	--	----	--------------------------

[2012년 경 1269]

1	해남군 속지면 지속리 173-2 3356m <sup>2</sup> [분 묘소재로인하여 분묘기지권설립여지있음]	임야	83,900,000
---	---	----	------------

[2012년 경 1504]

1	해남군 속지면 지속리 173-2 3356m<sup>2</sup> [분 묘소재로인하여 분묘기지권설립여지있음]	임야	83,900,000

<